

# 06

## 근로자 건강진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건강진단’의 개념부터 세워야 했다

“방직공장에 들어오면 귀가 먹어야 숙련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1960년대 초반, 방직기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보건관리자의 지적에, 공장장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일하느라 바쁘니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말라”는 통명스러운 대답도 늘상 되풀이되었다.

어느 운수업체에서는 건강진단을 자진하여 실시하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어떤 성과를 얻었냐고 묻자, 차장과 운전기사의 몸을 뒤졌는데 숨겨둔 돈들이 나왔노라며,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노라는 대답이었다.

일반건강진단 수가표(1977)

진단 과목	74년도 수가	77년도 수가	비고
기본 건강	200	440	기본 건강
노출 검사	120	740	노출 물질
엑스선 검사	180	730	엑스선 검사 또는 방사능 검사
혈액 검사	310	380	건강 관리
시력 검사	60	50	필수 과목
귀각 검사	200	460	신경, 귀, 코, 목, 이목련합 검사
합	1,200	1,800	

최용건도 시에 초하위 특수건강진단 추가검사를 했음서도 그에 따른 비유등 추가한다.

5. 정기(기) 건강진단 검사는 가산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수가표(1977)

번호	구분	77년도 원액	77년도 기준액	77년도 준액	비고 (1977년도)
1	음성 건강	1,200	250	1,400	
2	노출 검사	100	140	60	
3	건강 관리	4,000	300	3,000	
4	건강진단특검	1,200	200	1,000	
5	건강 관리	1,800	360	2,400	
6	복합 건강	1,800	480	1,360	
7	수은 건강	1,250	310	1,000	
8	방사능 건강	1,200	280	1,000	
9	귀각 건강	1,200	260	1,000	
10	가습기 건강	1,800	210	1,000	
11	가습기 건강진단	1,200	260	1,400	
12	신장화장수 건강	1,800	280	1,000	
13	시력검사 건강	1,800	270	1,000	
14	통풍건강 건강	2,400	440	1,000	
15	복합 수	3,800	640	3,000	

## 대한산업보건협회, 건강진단을 바로 세우다

그때는 법령에 건강진단 항목이나 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매년「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요령」이라는 것을 노동청장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 건강진단 실시를 독려하였다. 그 당시의 건강진단에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결핵의 발견과 그 후속조치였다.……(중략)……

1963년부터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에서 전국의 30명 이상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일반 군소 병원에서 가톨릭대학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독점하는 것에 반발하여 몇 년 못가서 병의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질병 발견보다는 개인 병원의 수익에 치중하는 현상도 있었다. 일부 의사는 청진기를 귀에 꽂지 않고 귀 뒤에 걸치고(귀에 꽂고 하루 내내 검진하면 귀가 아프니까) 하루 500여명의 건강진단을 하는 의사도 있었고, …… 중략 …… 따라서 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는 부실검진 방지에 행정력을 총 투입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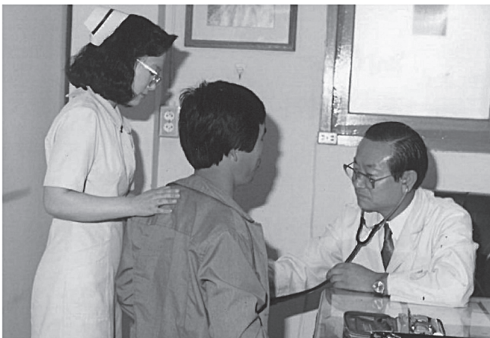
다행히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충실한 건강진단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노력하여 1970년대 들어서는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장선식, 「대한산업보건협회 40년사」, p288

## 정기건강진단, 한국 산업보건의 시작

한국 산업보건의 시작과 성장은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사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초기에는 일본 노동과학연구소의 계몽활동을 모델로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들에게 산업보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계몽하여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건강진단 계몽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한국의 산업의학」이라는 간행물을 발행하여 정부의 관계기관, 의과대학, 언론사, 기업주, 보건관리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근로자가 스스로 거부하던 때였기에 그 시절에 가능했던 산업보건 업무는 작업환경평가와 제한적인 실험실적 연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건강진단 모습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 없었기에, 보건사회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건강진단비용을 받게 했다. 이때 몇몇 의료기관 중에 정기건강진단을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여기는 곳도 생겼고, 건강진단비용을 텅핑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건강진단요령'을 정해서 규제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노동부의 산업보건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정기건강진단의 시행과 감독에 치중하게 되었다.

### 검찰조사, 그리고 그를 이해한 검사

1960년대 초반 시작된 전국 근로자 건강검진의 진단비는 1인당 500원으로, 실비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건강검진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설정된 금액이었다.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비를 털고 낮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밤을 세워 결과를 분석했다. 그런데 1964년, 조규상 교수(당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에게 검찰청에서 소환장이 날라왔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내 영역을 침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조규상 교수는 전국 건강진단 사업의 뜻을 참으로 한참이나 설명했고, 전국 건강진단의 깊은 뜻을 이해한 담당검사는 오히려 조규상 교수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 대한산업보건협회, p.53)

### 빛을 내서 추진한 근로자복지위원의 건강진단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2년부터 부산과 전남을 시작으로 '근로자복지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했는데, 개원 3년후 정부의 보조가 끊겨 복지위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 복지위원이 처음부터 운영재원을 가지고 설립되었던 것도 아니어서 매년 초, 즉 건강진단시기가 아닌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결국 사채를 얻거나 X-ray 필름과 각종 시약을 외상으로 얻어 사업을 하고, 빛은 건강

과거의 검진차량(1970년대)



현재의 검진차량(2000년대)



진단비용이 수급되기 시작하는 7~8월이 되어서야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말에는 다시 빈털터리 신세가 되곤 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의 산업보건서비스센터만이 매달 운영비를 마련했는데,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집단보건관리가 이루어진 덕분이었다.

협회 본부의 경우, 사무실은 가톨릭대학 산업의학연구소에 두어 예방의학교실을 빌려쓰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5명의 상근인원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협회가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란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의 직무교육훈련비와 센터에서 보내는 본부 관리비가 전부였다. 건강진단 의료기관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협회 본부와 복지위원의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 가톨릭대학, 협회 운영에 큰 도움

이 때 가톨릭대학 산업의학센터에서 협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원도 지방의 광부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협회 본부 명의로 실시한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가톨릭대학 산업의학센터가 동원된 것이라, 의료원 내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어찌어찌 명맥을 이어온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구분하지 않고 각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각 종합병원에 보건관리과를 두도록 정해지고 몇몇 의과대학이 산업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건강진단을 시작하자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개업의원들과 마찰이 생겼다. 각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연구기관은 ‘산업보건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산업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마찰은 줄어들었다.

## 건강진단기관 지정제로 근로자 건강진단 전국 기반 구축

협회는 1978년에 ‘산업보건서비스센터’ 명칭을 ‘산업보건연구소’로 개칭하였고, 1983년 3월에 영등포, 부산, 경북, 광주, 마산 등 5개 산업보건연구소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1984년 대전산업보건센터, 1985년 동해산업보건센터, 1987년 전북산업보건센터를 설립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협회 산하 8개 산업보건센터에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특수건강진단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제 실시로 1987년4월 협회 산하 8개 산업보건센터가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적으로 건강진단사업 활성화를 위해 1988년에 충북산업보건센터, 1992년에 의정부산업보건센터, 양산산업보건센터, 수원산업보건센터가 설립되어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협회 산하 12개 산업보건센터에서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협회 산하 12개 산업보건센터가 전국 조직망을 가지고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 근로자 건강진단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